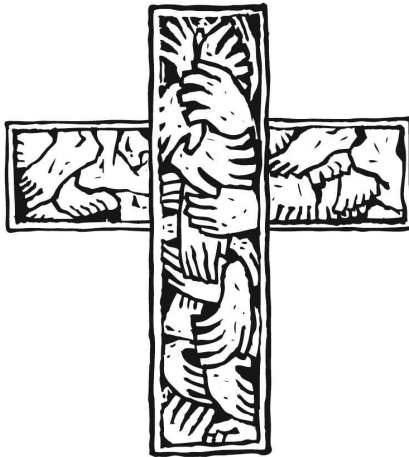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12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한 몸 돌보고 우리 식구들이나 건사하겠다고 아등바등 살다가, 지치고 막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한숨에 응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서 생명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내면의 빛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펼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삶의 경계에 내몰려 버린 이들이 세상 곳곳에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4:7,8 인도자

▲ 교 독 문 43. 시편 99편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한림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19.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다 함께

▲ 성경봉독 출 33:7~11 I. 인도자
 II. 이재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I.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마중물 찬양대
 II. 예수 닮기 원해 청파 찬양대

말씀	거룩 앞에 서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말씀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현존 앞에 서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 되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의 자애로운 얼굴빛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다시 맞닿아, 생명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총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홍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병상 메모 1

- 김진영 선생이 임종 3일 전까지 병상에 앉아 쓴 글들 -

■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모든 시끄러운 일상들이 문 뒤로 물러났다. 눈앞에 오로지 사랑의 대상들만이 남았다. 세상이 사랑의 대상들과 소란하고 무의미한 소음들의 대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았다.

■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것은 나를 상처 낼 뿐이다.

■

살아 있는 동안은 삶이다.
내게는 이 삶에 성실한 책무가 있다.
그걸 자주 잊는다.

■

촬영하는 친구들을 따라와서 축령산 개울가에 앉아 있다. 현자가 말했듯 물은 다투지 않는다. 제일 낮은 곳을 제자리로 찾아 흐르기 때문이다. 물은 꿈이 크다. 가장 낮은 곳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다. 그렇게 물은 언어 없이 흐르면서 자유의 진실을 가르친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하면 지난날도 다가올 날도 아쉽다. 그러나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남겨진 시간들이다. 그 시간도 흐른다. 사는 건 늘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었다. 남겨진 시간, 흐르는 시간, 새로운 시간, 그 한가운데 지금 나는 또 그렇게 살아 있다.

■

바울은 옥중 편지에 썼다.
“내 마음을 고백하지면 저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소

망을 뒤로 미룹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보니 나도 언젠가 강의에서 말했었다. 나를 위해 쓰려고 하면
나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러나 남을 위해 쓰려고 할 때
나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된다고.

■

베란다에서 세상의 풍경을 바라본다. 또 간절한 마음이 된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

어제 축령산 휴양림에 왔다. 자는 내내 계곡물 소리가 꿈속에 내리는
비처럼 귀 안에 가득했다. 물들은 자면서도 쉬지 않고 흐른다는 걸 알
았다. 흐른다는 게 산다는 건지도 알았다. 아침에 커피 잔을 들고 계
곡으로 내려갔다.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내밀고 심호흡을 할 때 종교
인들이 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부르든지도 알 듯했다.

■

TV를 본다.

모두들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

나의 병은 유전자병이다. 과학은 아직 유전자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
나 정신이 있다. 정신이 유전자를 바꾼다. 웃음은 정신이다. 프로이트
는 그 정신을 ‘유머어’라고 부르고 니체는 ‘명량성’이라고 불렀다. 나
에게 그것은 ‘자긍심’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긍정한다. 나의 정신
은 늘 철없어서 즐거운 정신이었다.

가을 드들강

- 김태정

울어매 생전의 소원처럼 새가 되었을까
새라도 끼끗한 물가에 사는 물새가

물새가 울음을 떨어뜨리며 날아가자
바람 불고 강물에 잔주름 진다
슬픔은 한 빛으로 날아오르는 거
그래, 가끔은 강물도 흔들리는 어깨를
보일 때가 있지
오늘같이 춥고 떨리는 저녁이면
딸꾹질을 하듯 꺾꺾 슬픔을 씹어 삼키는,
울음은 속울음이어야 하지 울어매처럼
저 홀로 듣는 저의 울음소리
바흐의 무반주첼로곡만큼 낮고 고독한 거
아니아니 뒤란에서 저 홀로 익어가는
간장맨치로 된장맨치로 톱툰하니
은근하니 맛깔스러운 거

강 건너 들판에서 매포한 연기 건너온다
이맘때쯤 눈물은
뜨락에 넣어놓은 태양초처럼
매움하니 알큰하니 빠알가니
한세상 슬픔의 속내, 도란도란 익어가는데
강은 얼마나 많은 울음소릴 감추고 있는지
저 춥고 떨리는 물무늬 다 헤아릴 길 없는데
출렁이는 어깨 다독여주듯
두터워지는 산그늘이나 한자락
기일게 끌어당겨 덮어주고는
나도 그만 강 건너 불빛 속으로 돌아가야 할까부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김도윤 김명숙 김명희b김영미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충실
 조아라 김현주 문복순 박병구 박연주 박지혜 변재민 이소혜 심상숙 안미숙
 안현숙 오슬기 원용일 최현선 이용현 이재문 이정은 이주경 안상숙 장영숙
 정두리 정연희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최미자 최소라 고인성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추현영 한상익 정영선 한훈식 권채영 허명선 허신열 현진

감사헌금

강시종 김남홍 김명하 오형일 김반야 김영미 김영호 김우진 김태정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송병찬 양찬승 오민용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정우
 장윤지 이정은 임진엽 장현희 정구봉 정학성 김현숙 채일석 최가윤 황현성
 이오복 무명2

녹색꿈헌금

김미란 김향자 이현죽 천영애 천윤기

생일감사헌금

박재영 이현정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선교회 총회 : 오늘 오후 모임은 선교회입니다. 총회로 모이시고 활동보고서 (재정보고)와 새임원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활동보고 : 각부서와 기관은 2018년 한 해 살림(재정)을 정리해 사무실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례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길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2월 8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12월 15일(토) 오후2시입니다.
4. 임원회 : 분기 임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분기 활동보고서와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앙실천 :

떡 대접 : 우윤석 집사

다음 주 설교 본문	계1:4~7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조항범	이재선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하현철
11월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장병준	이성범 권미숙	한양미 박소현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서정순	

오늘 식당 봉사	곽권희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강희석 박명제 김재환		
다음주식당봉사	이순정 오복순 이소선 김인숙 양선용 박석원 송정근 김형근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임주빈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